

## 연구소 소식

### 기관 명칭 「육아정책연구소」로 변경

본 연구소는 기관의 고유 정체성 확립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28일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승인)로 기관명칭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육아정책연구소」로 변경하였다.

### 「2009년 연구과제 결과보고회」 개최

본 연구소는 2009년 1월 14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09년 연구과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5개의 주요과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주제(발표자)는 (1)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 연구(장명림 연구위원), (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김은영 부연구위원), (3)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김은설 부연구위원), (4)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서문희 연구위원), (5)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이윤진 부연구위원)이다.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 이기숙 교수의 진행으로 배재대학교 이대균 교수, 여주대학 이미정 교수, 순천대학교 공인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서영숙 교수, 건양대학교 황성원 교수가 차례로 토론을 하였다.



###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사업 위탁 협약 체결

본 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2009년도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 사업」을 위탁받아 2010년도에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도입 방안’, ‘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총 15개의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선진화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선진화사업지원단을 구성하였다.

### 제3차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 정기회의 개최

2009년 12월 21일 본 연구소 회의실에서 제3차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009년 11월 25일 정부(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에서 ‘초등학교 취학 1년 앞당기기’ 등을 포함하여 보육·교육 관련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육아지원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본 연구소의 조복희 소장, 서문희 기획조정실장, 장명림 정책연구팀장, 그리고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 18개 학회 및 단체 대표자가 참석하여 정부가 자녀양육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제시한 보육·교육 관련 검토과제들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 제6차 OECD ECEC Network 회의 참석

문무경 연구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대표하여 2009년 12월 7~8일 양일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유아교육과 보육 네트워크사업 회의(주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참여하여 한국 사례를 발표하고,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Encouraging Quality in ECEC)’ 사업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